

전통음악 및 서양음악 가수에 대한 음악 음형대 및
성대진동양상에 대한 연구

홍기환*, 박병암, 양윤수, 김현기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음성실험실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숙달된 가수들은 공연시 효과적인 소리의 울림현상을 생성하여 노래소리가 잘 전달되는데 이는 노래소리에 대한 음악 음형대의 형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판소리의 일반적인 창법은 발성중 적절한 감정의 삽입과 더불어 아주 깨끗한 소리보다는 적절하게 탁음을 조화시키므로서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으로 판소리 가수만이 가지는 독특한 발성법에 의해 성대의 과도한 접촉 및 진동에 의해 병변이 초래되며 심한 경우 발성기관에 병적인 병변이 발생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음악적인 견지에서 노래소리의 전달이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기위해 음악 음형대의 발현현상을 연구하였고 둘째, 노래소리시 성대진동 양상의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해 후두 스트로보경을 이용하여 성대진동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던바 성대진동의 특징으로 미루어 판소리의 발성법은 서양음악과는 달리 노래소리의 전달을 위해 음악 음형대를 이용한 공명에 의한 음의 전달이 아니며 노래시 주로 음량의 증대와 음고의 변화 및 적절히 혼탁한 소리에 의한 노래소리의 전달과 더불어 통성 혹은 항성에 의한 소리의 전달이므로 자연히 후두 및 경부의 과도한 긴장 및 성대의 무리한 진동에 의해 성대에 병변이 초래되며 성대진동 양상도 대부분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